즉시 배포용: 2017년 11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재향군인의 날을 맞으며 뉴욕 최초의 군종별 참전군인 번호판 발급 발표

새 번호판 이미지는 여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 육군(U.S. Army), 미 해군(U.S. Navy), 미 공군(U.S. Air Force), 미 해안 경비대(U.S. Coast Guard) 및 미 해병대(U.S. Marines) 등 군종에 따른 새 번호판을 발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정 번호판은 뉴욕에서 처음으로 발급하여 퍼플하트 훈장(Purple Heart Recipient), 베트남 참전용사(Vietnam Veteran) 및 테러와의 전쟁 참전 군인(War on Terror Veteran) 전용 번호판 등 기타 참전군인과 각종 군인에 제공하는 다수의 혜택과 함께합니다. 참전군인의 날(Veterans Day)을 맞으며 770,000명 이상의 뉴욕 출신 참전군인들이 번호판에 자신의 전투근무 신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자유와 뉴욕주의 가치 그리고 국가의 근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싸운 수많은 영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전군인들의 놀라운 용기와 나라를 위한 복무를 격려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새 번호판을 발급함으로써 참전군인들은 동료 군인들과 형성한 견고한 유대관계를 경축할 수 있습니다."

이 군종별 번호판은 군인과 참전군인에 최초로 제공하는 일련의 번호판입니다. 뉴욕시민이 지정 번호판을 구매하려면 제대명령서(DD-214 또는 상응한 서류) 사본으로 군 복무 경력을 증명하고 신청서(여기)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뉴욕주는 1775년에 시작한 미국 독립전쟁부터 오늘까지 참전용사들이 군 복무를 통하여 두각을 나타낸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은 1862년에 주 민병대에 방위군(National Guard)이란 공식 명칭을 단 첫 번째 주이며 1903년에는 의용군법(Dick Act)으로 모든 주에서 뉴욕주와 같이 민병대에 방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국회는 여성의 방위군 복무를 막는 개정법을 제안하였으며 이틀 만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방위군에 처음으로 입대한 여성은 1956년 뉴욕 방위군의 106부대 작전병원(106th Tactical Hospital) 군인이었습니다.

새로 발급하는 번호판은 군 복무를 한 형제자매들을 기리는 기회를 만들려는 주지사의 약속을 지지합니다. 뉴욕 참전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번호판은 그들이 자신의 군부대와 뉴욕주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자부심을 표현할 기회를 드립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최근에 제공한 군용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뉴욕주 보훈처의 Eric J. Hess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군 복무 군인들에게 군종에 따른 번호판이 생겨서 기쁩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같은 이유로 참전하여 복무하지만, 각자가 자신이 복무한 군부대에 대한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민들은 그 자부심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관리부(DMV)의 부청장 Terri Egan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MV는 뉴욕 전역의 참전군인들에게 군종별 번호판을 발급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시민이 새로운 번호판을 보고 미국 군대(United States Armed Forces)에서 군 복무한 군인들을 기념하고 기리기를 바랍니다."

하원의 퇴역군인 사무위원회 위원장 Michael DenDekker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참전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였으며 지금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뉴욕주에서 우리의 참전군인들을 기리면서 자신의 군 복무 경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려는 사람들에게 번호판을 선택할 기회를 추가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베트남 참전 미군 뉴욕주 위원회(Vietnam Veterans of America New York State Council) 회장 Ned Foot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전군인 보훈처(Division of Veterans' Affairs)는 이와 같은 번호판을 통하여 뉴욕의 참전군인들이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와 우리 부서가 뉴욕 참전군인들을 위하여 계속하여 이런 서비스들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미국의 1차 세계대전(World War I) 참가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목적으로 최근에 주 정부 청사에서 참전 뉴욕시민들을 기리는 전시가 있습니다. 전시품은 2018년 11월까지 올버니에 있는 주 정부 청사에서 오랜 역사가 있는 전쟁실(War Room)에서 전시됩니다. 전시실은 대중에 무료로 개방합니다. 뉴욕주 정부 청사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gs.ny.gov/esp/ct/tours/Capitol.asp을 방문하십시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용감한 뉴욕시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WWI 100주년 위원회(WWI Centennial Commission)를 방문하십시오: www.ny.gov/WWI. 이 웹사이트에서 뉴욕군인과 영웅훈장 수상자에 대한 구술 역사자료와 연결된 링크와 50개 이사의 WWI 이벤트 및 주 전역의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 참전군인 보훈처(Division of Veterans' Affairs)
뉴욕 참전군인 보훈처는 뉴욕의 참전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국 군인 복무법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및 그룹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서는 뉴욕 각 지역의 현지에서 50개의 현장 사무실을 두고 참전군인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이 부서는 국가와 주를 위해 복무한 군인들을 위하여 수준 높은 지원, 상담 및 지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팔로우하거나, 웹사이트 veterans.ny.gov 방문 혹은 1-888-VETS-NYS (1-888-838-7697)번으로 예약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